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KUCST) 회의록

■ 2000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00년 3월 17일(금) 17:00~19:00

장 소 : 대한화학회 회의실

참석자 : 이사(손연수, 김광웅, 진정일, 김성철, 이대운, 이본수, 이철태, 김용환(화공사무국장, 박원훈 부회장 대리))

위임자 : 이사(이병성, 진종식, 허동수, 홍성안), 감사(남종우, 이후성)

1. 회의성원 보고 : 이사 13명중 8명 참석, 4명 위임으로 성원, 개회
2. '99 제4회 이사회회의록 낭독 : 회의록 5(1)항 중 말미 「.....회장을 추대키로 함을회장을 추__키로 함」으로 자구 수정키로 하고 이의 없이 확인, 통과
3. 회무 보고는 안병현의 낭독 보고로 원안대로 이의 없이 접수되었음.
4. 1999년 수입·지출결산(안)은 수정, 보완키로 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 (1) 금년도부터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업무 및 회계” 문구를 삽입키로 함.
 - (2) 지출부의 비고란 중 일반회계의 미불금의 표시위치 수정과 합계의 미수금을 미불금으로 자구 수정키로 함.
 - (3) 총괄결산부표 중 미불금 부분의 찬조금을 찬조금으로 자구 수정키로 함.
5. 2000년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안)은 문구 수정과 문항을 추가키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
 - (1) 수정안 중 (1)항의 “화학산업의 R & D와 교육”을 “화학산업 진흥을 위한 R & D와 교육”으로 문구 수정
 - (2) 수정안에 “회원학회 및 특별회원 단체의 사업후원”을 (7)항으로 추가
6. 화학관련분야 연합회 술어위원회 구성은 원칙 동의함.
 - (1) 회원학회의 “술어집” 발간으로 발생하는 급부 고려
 - (2) 회원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7. 신입 정회원 및 특별회원 가입 : 우선 “한국화학회관”의 특별회원 가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총무재정 전문위원회에서 회원가입에 필요한 공문, 입회원서, 회원증을 준비키로 함.
8. 화학회관 건립 추진 : 회원학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 추진키로 함.
9. 기타 토의사항
 - (1) 범학회 차원에서 추대되었던 김시중 초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키로 함.
 - (2) 연합회 소식지 제2권 제1호의 편집 : 연합회 전·현 회장 이 취임사, 임원명단, 회의내용, 회장단의 사견과 개략 프로필, 회원학회의 소식, 임원의 동정을 게재키로 함.
 - (3) 김광웅 부회장으로 부터 심포지엄 준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① 제1차 모임을 3월 13일 한국고분자학회에서 개최
 - ②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1명씩 추가 보고 : 이철태(공업), 이해황(화학), 홍성안(화공)
 - ③ 연사를 4월말까지 확정하되 이사회에서 추천 협조를 부탁
 - ④ 연사수 : 정부 1, 기업 2(대·중소기업 각 1명), 학계·연구소 1명 범위
 - (4) 김광웅 부회장으로 부터 연합회 홈페이지 구축보고 : 우선 대한화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합회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구축을 김용록 위원이 맡고, 연합회 자체 홈페이지 구축은 기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었음.

작성 자 : 안 병 현

확인 자 : 손 연 수 회장(2000. 3. 17)

■ 2000년도 제2회 회장단 회의록

일 시 : 2000년 2월 29일(화) 17:00~18:30

장 소 : 대한화학회 회의실

참석자 : 손연수, 김광웅, 이범성, 진정일, 박원훈(위임)

1. 제1회 회의록 검토, 확인
2. 2000년 상반기 심포지엄을 6월 초순(6. 9) 개최하되 주제는 「화학산업의 R & D와 교육」으로 잠정 정하고 김광웅 부회장(기획·홍보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심포지엄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함.
3. 연합회 소식지(제2권 제1호)를 3월말까지 발간하며 전·현직 회장의 이임사, 신임사와 임원명단, 회원학회 소식 등을 게재하고 학술·출판전문위원회(구윤모박사, 이철태박사)에게 준비키로 함.
4. 화학관련분야 술어위원회를 창립 4개 회원학회와 한국생화학회, 한국분석과학회가 참여하는 범위에서 구성, 추진키로 함.
5. 전문분야별 사업계획 검토

총무재정 : (1) 특별회원사 영입을 손연수회장과 함께 추진키로 함.

(2) 국내 화학산업을 대표할 협회 결성을 위한 자료로 미국 Manufacturer's Association 자료를 Internet에서 찾아 준비할 것.

기획홍보 : (1) KUCST Home Page 준비

(2) “화학산업의 R & D와 교육” 심포지움 준비

산학협력 : 11월 예정인 산·학 심포지움 기획 준비

학술출판 : 소식지 발간(분기별)

6. 기타 토의사항

- (1) 각 회원학회들이 2000년도 연합회 회비를 조속히 납부하도록 부회장들께서 협력해 주실 것.
- (2) 한국공업화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는 연합회는 후원단체로 참여키로 함.
- (3) 1999년도 회계감사는 차기회장단 회의에 이주성, 이화영 전임감사를 참석토록 부탁, 회계감사를 부탁키로 함.
- (4) 한국공업화학회 10년사에 동학회와 연합회 창립 4개 회원학회 회장의 축사를 게재키로 하였다는 취지를 한국공업화학회 이철태전무이사가 전하고 원고를 부탁하였음.
- (5) 2000년도 제1회 이사회를 2000. 3. 17(금) 오후 5시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함.

작성 자 : 안 병 현

확 인 자 : 손 연 수 회장(2000. 2. 29)

■ 2000년도 제3회 회장단 회의록

일 시 : 2000년 4월 12일(수) 17:00~18:30

장 소 : 전자 광감응분자센터 사무실

참석자 : 회장단(손연수, 이범성, 진정일, 박원훈, 김광웅) 5명 전원 참석

1. - 금년도 제 1차 6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연사 선정은 준비위원회의 안을 검토한 결과 학연 대표로 김충섭소장(화학연), 대기업 대표로 여종기원장(LG 화학), 중소기업 대표로 이부섭사장(동진 쉐미캡) 정부대표로 오영교차관(산자부)을 초빙키로 함. 이들 1차 지명연사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차후 논의키로 하였으며 정부측연사는 손연수회장이, 학계 산업계연사는 김광웅부회장이 접촉토록 함.

- 심포지움 예상 경비 600백만원중 300백만원은 광고비로 충당키로 하고 일단 한회사(LG 화학)를 후원사

로 지정하여 300백만원을 지원받고 광고를 게재키로 함.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회원학회들이 분담하여 한 회사씩 맡기로 함.

- 금년도 제 2차 11월 심포지엄은 산학협력전문위원회(박원훈 위원장)에서 주관하되 회원학회들이 공동 주관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 심포지움 타이틀을 정하여 산업계와 학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함.
- 2. 신규 정회원 영입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며 특별회원 영입은 이미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및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각 회장단과 합의가 되었으므로 진정일부회장이 회원가입 공문과 입회원서를 수정보완하여 금주내로 보내고 KIST, KRICT의 특별회원 영입은 손연수회장에게 일임키로 함.
- 3. 산학협력위원회(가칭) 설치의 위 협회나 연구소가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후 추진키로 하고 산학협력위원회(가칭)는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2중 구조 보다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일위원회로 구성키로 함. 위원회 구성은 산업계 대표인 각 협회에서 회장, 부회장 2인이 참여하고 연합회 회장단 5명과 연구계 대표로 KIST 원장 및 한국화학연구소 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내부안으로 정하고 최종적인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구성은 특별회원 가입이 완료된 후에 이들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작성 자: 안병헌

확인 자: 손연수 회장(2000. 4. 12)

■ 2000년도 제4회 회장단 회의록

일 시 : 2000년 5월 30일(화) 17:00~18:30

장 소 :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전자 광감응분자센터 사무실

참석자 : 손연수, 박원훈, 이법성, 진정일, 김영하(김광웅 대리) 5명 전원 참석

1. 연합회 술어집 편찬사업과 관련하여 손연수회장이 저작권 전문 변리사(박장원특허사무소 이승열변리사)에게 문의한 결과 여러 회원학회의 술어집을 취합, 수정, 보완할 경우 새로운 저작권이 형성되며 각 학회의 술어집 저작권이나 판권과는 무관하다는 배경설명이 있었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연합회 술어위원회 위원장은 손연수회장이 맡기로 확정하고 실무급 위원을 각 학회로부터 보강키로 함.
 - 연합회 술어집의 저작권은 연합회와 회원학회가 공동소유키로 하고 모든 비용을 공동부담하며 손익도 공동분담키로 함.
 - 술어집의 발간은 2001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회원학회에서 술어집을 최근에 발간한 경우 적절한 상용조치를 해 주기로 함.
 - 현재 술어의 추가 보완이 필요한 학회에서는 학회별로 추가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연합회술어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연합회 술어집에 추가 보완키로 함.
2. 연합회 소식지 2권 2호(통권 3권)에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장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장의 “화학산업계와 연합회간의 협력 방향”에 대한 기사, 한국공업화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내용, 그리고 제2차 산학심포지움 내용을 게재키로 함.
3. 연합회 특별회원 가입 관련
 - 회원증은 특별회원과 학회회원 모두에게 발급하되 B4 사이즈 크기로 액자에 넣어서 전달하고 문안은 진정일 총무부회장에게 일임키로 함.
 - 산학협력특별위원회(가칭)는 특별회원사들의 가입이 완료된 후에 구성하고 화학산업을 대표하는 기구가 생길 때까지는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
4. 화학관련학회 역사 편찬사업은 안동혁박사님 세대를 중심으로 편찬하되 손연수회장이 진민제교문계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확실하게 상의한 후 진정일부회장이 맡아 편찬사업팀을 구성키로 함.
5. 제2차 산학심포지움 준비는 김영하 기획 홍보전문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아래의 사항을 결정하였음.

- 강연자료집은 800부 인쇄하여 산업체와 연구소에만 홍보 차원에서 배부기로 함.
- 강사료(축사 포함) 300,000원, 지정토론자 100,000원
- 좌 장 : 김광웅 김영하
- 지정토론자를 각 강연에 한명씩 지정하되 일단 2명의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기로 함.
강연1 : 이본수 이철태, 강연2 : 김운수 이영길, 강연3 : 양덕주 김기협, 강연4 : 정봉영 최진호
- 리셉션: 20,000원/ 50명분/ 가든파티
- 심포지엄 홍보는 손연수회장이 KIST홍보실에 부탁기로 함.

6. 기타사항

- 신규 회원학회의 가입에 따른 정관개정을 차기 회장단회의에서 논의기로 함.
- KUCST 관련소식이 각 회원학회 매 소식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각 회원학회 회장들께서는 회원학회 소식지 편집담당자를 확실히 정하여 KUCST와 회원학회간에 중요한 기사를 교환 게재토록 조치하기로 함.

작성 자 : 안 병 현

확 인 자 : 손 연 수 회장(2000. 5. 30)

■ 제1차 연합회 술어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0년 4월 28일(금) 17:00~18:30

장 소 : 대한화학회 회의실

참석자 : 손연수(회장)

김창홍(대한화학회 술어위원회 위원장)

김재진(한국화학공학회 술어제정위원회 위원장)

도춘호(한국고분자학회 용어제정위원회 위원장)

이윤식(한국공업화학회 술어제정위원회 위원장)

1. 술어 통합 작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화학·기술 전 분야에 대한 술어를 통합 정비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화학관련학회 회원간의 이해증진과 교류의 폭을 늘리고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므로써 국내 화학공업발전에 기여한다.

2. 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술어위원회”로 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잠정적으로 위원장 1인과 각 회원학회 술어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위원 1인씩 총 9인으로 하되 필요하면 각 회원학회가 1인씩 추가하기로 한다.

3. 작업 범위는 현재 회원학회가 제정한 술어집을 통합, 정비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하면 새로운 영어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작업 방법은 일단 기존 술어집(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을 통합 나열한 후 정비하기로 하고 기존 술어집의 diskette을 도춘호박사(한국고분자학회)가 받아 통합 정리하기로 한다.

4. 각 회원학회 술어위원회 위원장들은 각 해당학회에서 연합회의 술어 통합작업에 관련된 제반사항(판권, 인쇄 관련 사항 등)을 토의하여 반영해 주고 연합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동 사항을 토의하기로 한다.

5. 2차 연합회 술어위원회는 기존 술어집 통합 작업이 완성된 후 소집하기로 한다.

■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식지 인사말

학계와 산업계의 보다 강력한 연대와 협력 필요(韓國石油化學工業協會 會長 成在甲)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생산액이 46조원 규모로 국내 산업 총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화학산업 생산액에서도 4%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큰 규모의 산업입니다. 또한 전자정보소재, 생명공학, 환경산

업 등 21세기 첨단산업들도 상당부분 화학산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 잠재 가치가 무궁무진한 고부가가치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중요한 화학산업에게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화학 학계가 '화학관련학회연합회'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 협력기반을 구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점점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과거 수백년의 변화과정이 이제는 일년으로 단축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화학산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화학산업이 인류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사실에 안주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류의 핵심과제가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생활고의 해결이었다면, 이제 인류의 미래는 '복지의 세기'로 인간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향유하며 재해나 질병에 의한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산업의 발전 패러다임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의 세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의 보다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화학산업에서 산학 협력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Tool을 갖지 못하고 개별 기업차원에서 장학금이나 연구비 지원과 같은 분산된 형태의 교류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금번 화학관련학회연합회의 설립으로 화학산업에서 업계와 학계가 협력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봅니다. 이제 업계에서도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 하에 업계와 학계가 만나서 학계는 업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고, 업계는 학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옛말처럼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서로의 만남과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손연수 회장님과 대한화학회 진정일 회장님, 한국화학공학회 박원훈 회장님, 한국공업화학회 이범성 회장님, 한국고분자학회 김광웅 회장님, 그리고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김시중 전회장님을 비롯한 연합회 관련 여러분들께 연합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기술발전과 산학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2차 산학심포지엄을 마치고

우리 나라 화학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한 본 연합회 제2차 산학심포지엄이 지난 6월 9일(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손연수회장의 개회사, KIST 박호균원장의 환영사,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이복영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화학산업의 진흥을 위한 R&D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김철두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이 '21세기 화학산업의 정책방향', 이부섭(주)동진씨미켄 사장이 '미래화학산업을 위한 중소기업의 R/D: 동진씨미켄의 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여중기 LG화학기술연구원 원장이 '새로운 도전-R&D를 통한 Restructuring', 김충섭 한국화학연구소 소장이 '21세기 화학산업과 화학교육'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심포지엄에서는 지정토론자를 정하여 지정 및 자유토론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시중 연합회 고문, 이복영 정밀화학공업진흥회 회장, 정수철 요업기술원 원장, 강연자를 비롯한 본 연합회 임원, 회원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고, 한국화학연구소 김운수박사, 삼성종합기술원 양덕주박사, 인하대학교 이본수교수, 고려대학교 정봉영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수고하여 주셨으며 연합회 김광웅부회장, 연합회 김영하 기획·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수고하여 주셨다. 그리고 주식회사 LG화학, 대정화금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진씨미켄의 후원이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함에 협조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애하여 주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호균원장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